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19주일
제34권 37호(가해) 2014-8-10

[목사]



갈릴리호수의 풍량과 예수 <렘브란트>

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여정이
우리 삶의 여정 그리고 신앙의 여정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원하는 학교 대학생이 되고
좋은 직장의 직장인이 되고
꿈에 그리던 배우자와 남편, 아내가 되고
안정된 환경에서 아빠 엄마가 되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고요하던 우리 마음의 호수는
언제 그랬냐는 듯 풍량이 일어납니다.

천주교 세례를 받고 신앙 활동을 열심히 하여도
수도자가 되고
성직자가 되어도 그 풍량이 쉽게 잔잔해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예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말입니다.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위로하고,
나약한 믿음 보살펴 주시는 예수님께
오늘도 내일도 한결 같은 감사와 찬미를 드리도록 합시다.

- 강동욱 신부 -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오전	8:30
	특전미사(청년미사)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오전	7:30
	학생미사(영어)	오전	9:30
	낮 미사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저녁 미사후
	레지오 마리아	오전 10:00
	예비자 교리반	오후 8:00
	성령기도회	오후 8:00
금요일	울뜨레아(4째주)	오후 8:00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오전 9:30
	소년 레지오 마리아	오후 6:00
토요일	M.E. Sharing(3째주)	오후 7:00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오전 10:00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오후 6:00
주일	배론청년회 모임	특전미사후
	레지오 마리아	오전 중
	아도라떼 성가대	오전 8:30
	글로리아 성가대	오전 9:00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00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오전 9:30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오후 1:00
	4째주 - 사목회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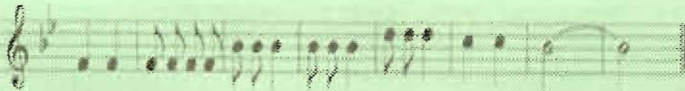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민찬기 요한, 배정환 베드로 & 전길례 모니카 (생)
주 일 낮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박무성, 김옥순 소피아, 전시웅 요한, 변세연 대건안드레아, 송근섭 발렌티노 김애자 테레사 & 노궁호 가리스토, 김차옥 요셉 & 김복남 마리아, 이석종 & 박남길, 정운 요셉, 정용선 시메온 & 김종규, 엄은섭 도로테오 (생)박흥룡 요셉, 김기준 안젤라, 박희자 마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 박혜경 레나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열왕기 (Kings) 19,9-11-13-1

화답송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제 2독서 로마서(Romans) 9,1-5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복 음 마태오(Matthew) 14,22-33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쁨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주 찬양합니다	228	183
봉헌	255	259	269
성체	368	281	309
파견	기뻐하며 왕께	252	213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선택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요엘 3,1).

제1장 성령은 누구신가?

3) 구원하시는 영

국가 형성 이전에 이스라엘에서는, 하느님께선택된 판관들이 이민족의 침입에서 백성을 구하는 지도자 역할을 하였고, 왕조 시대에는 예언자들이 거듭 등장하여서 선택된 백성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도록 권고하였는데, 이 판관들이와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 힘 안에서 활동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과 질곡 속에서 메시아, 곧 구세주를 기대하게 되는데, 이사야는 미래의 메시아가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물이라고 예언한다.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다”(이사11,2). 하느님의 영으로 가득 찬 메시아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만백성에게, 특히 가난한 이들, 마음이 부서진 이들, 잡혀간 이들, 갇힌이들, 슬퍼하는 이들에게 가져다줄 것이다(이사 61,1-2 참조). 인간의 구원을 위해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을 예고해 주는 ‘주님의 종’은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된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이사 42,1).

하느님 영의 능력으로 ‘주님의 종’은 온갖 고난을 받고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놓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인간들이 구원되도록 당신 영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빌론 유배를 체험한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바꾸실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해서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실 것이라고 희망하는데 이 새 계약은 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내적으로 변화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나는 그들에게 다른 마음을 넣어 주고, 그들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그들의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워 버리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 주어, 그들이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그대로 지키게 하겠다. 또한 이때에는 하느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선사될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리라. 그날에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 주리라”(요엘 3,1-2).

이렇게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선택된 이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 주셨다. 또한 장차 도래할 메시아를 당신의 영으로 가득 채우시고, 새로운 계약이 성취될 때에는 모든 이에게 당신의 영을 주시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당신과 진정한 일치를 이루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계속>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부제반에서 30일 피정을 할 때였습니다. 지도 신부님은 하루 네 개의 성경 말씀으로 1시간 정도씩 묵상기도를 시켰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상황 그대로를 상상하며 때로는 성경속의 인물로 빠져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묵상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저는 대부분 시간을 공상 속을 헤매다가 분심 끝에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오늘 복음인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대목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감고 복음에 나오는 베드로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어보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처음 한 발을 딛기가 어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딛고 물 위를 걸어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발밑이 딱딱한 마룻바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못가서 무서움으로 발에 힘이 들어가 그만 밑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마치 몸이 흔들리고 휘청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물에 빠지는 느낌이 왔을 때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이 정도 믿음밖에 안되나 하는 자책이었습니다. 너무 슬퍼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오래전 일이지만 그때의 기도시간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쿵쿵 뛵니다. 우리가 위험과 고통을 당할 때 가장 큰 위로와 힘은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이란 하느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풍랑에 허덕이는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이 십니까? 그러면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고 살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질책이라기보다 격려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이 신앙인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물 위를 걷다가 믿음이 부족해 물에 빠져 허덕이는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쉽게 유혹에 빠지고 늘 흔들리고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믿음을 해치는 요소가 너무 많고, 우리 안에도 늘 부족함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도와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물에 빠졌을 때에야 비로소 주님께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와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쳐서는 안 됩니다. 손을 내밀기만 하면 잡아주시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허영엽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생의 그림자

전혀 기다린 적 없는데도

어느 날 문득 내 안 가득 좌절이 들었어 있기도 하고

단 한 발자국도 내가 걸어 들어간 적 없는데

정신 차려보면 불행의 한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그건 불운해서가 아니라 걸 이제 겨우 알 듯합니다.

달이 지고 해가 뜨는 것처럼,

밥을 먹고 저녁을 맞는 것처럼 사는 일이란 걸.

◆이영 아네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자벳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남 1,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남성철 베네딕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목주기도 5단을 바치겠습니다. 목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 성모승천 대축일미사 : 15일 (금)

- 아침미사 : 오전 8시30분
- 저녁미사 : 오후 7시30분

◆ 제3회 백삼위 장학금 수여식 & 리셉션

-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 : 오늘 주일(10일) 11시 미사후
- 리셉션 & 뱃지 모임 : 오늘 주일(10일) 오후 5시
- 장소 : 토요 스시, 장학생들과 부모님들을 초대 합니다.

◆ 강동욱 세례자요한 신부님의 신앙특강 안내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좋은 반복과 좋지않은 반복을 돌아보는 시간을 주제로한 특강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십시오.

- 제목 : 반복과 신앙
- 일시 : 8월 17일 (주일) 오후 1시 성전
-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위하여 신부님께서 맛있는 점심을 제공 해 주십니다.

◆ 요셉회 8월모임 및 "장수사진 촬영" 안내

- 일시 : 8월31일(주일) 11시 미사후
- 장소 : 강당
- 촬영 봉사자 : 한장환 안토니오, 김선제 바오로
- 문의 : 정기은 비오 요셉회장 ☎(310)780-2789
- *당일 음식과 음료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부참석 환영합니다.

◆ '자녀와 함께하는 공예교실'

- 기간 : 8월23일까지(8주간) 매토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 성당 1층 회의실 또는 교실
- 강사 : 유선영 클라라(준비물관계로 미리 신청바랍니다.)
- 문의 : 자모회장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310)782-1025

◆ 제15차 한국어 교사 학술대회-미주 한국학교연합회 주최

- 기간 : 8월 12일(화) ~16일(토)-5일간
- 백삼위 한국학교 교사 10명 참가
- 장소 : L.A. 한국교육원

◆ 2014~2015년도 1차 백삼위 한국학교 교사연수

- 주제 : 학사일정 관리 및 교안작성
- 기간 : 오늘주일(10일)~8/17(주일)
- 참가자 : 백삼위 한국학교 교사 및 봉사자 전원
- 장소 : 한국학교 교사실

◆ 성마가렛 메리본당 제32회 토미타 페어

- 일정 : 9월5일(금)~7일(주일)
- 장소 : 성마가렛메리 성당
25511Esheiman Ave. Lomita
- 행사내용 : 각종놀이기구와 게임 & 음식판매
- 경품권 판매 : 백삼위본당 8월17일
- 문의 : ☎(310)326-3364

부르심은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세속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8월10일 : 친교 점심 나누기 없습니다
- 8월17일 : P.V. 2/4반(북어국 + 부추겉절이 \$0)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고천용 김선제 김종렬 민순섬 오일순 이형삼 주용순 영희가보라	구자운 김원모 김충섭 박음전 원건희 이형철 최원석	권오상 김유숙 김형순 반정미 이근모 전정일 한장환	김광호 김정선 남명자 송영미 이민상 정지숙 송마이클	김기정 김정순 민기남 송재훈 이상석 이영희 주대중 주영석	김상관 김정웅 민성원 오상준 이영희 주영석
합계 : \$ 3,630						
주일미사 헌금 : \$2,432		2차헌금 : \$828				

성전헌금	고천용 김충섭 이근모 주대중 송마이클	구자운 남명자 이민상 주용순	권오상 민기남 이상석 최원석	김기정 민순섬 이영희 한장환	김선제 박음전 이형삼 영희가보라	김원모 원건희 정지숙
합계 : \$1,990						
감사헌금 : \$200(배난군, 박미경)		주보광고후원 : \$250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남가주 여성 영어 꾸르실료 교육

- 일시 : 8월 28일(목) ~31일 (주일)
- 장소 : 포모나 Cursillo house
- 신청마감 : 8월 11일
- 지도 : 이유진 유스티노 신부
- 자격 : 21세이상 봉사정신이 투철한 가톨릭 신자
- 문의 : kccmsec@gmail.com

◆ 작은예수회 LA분원을 위한 행사

- 주제 : 공동체를 위한 "함께 삶의 기쁨을"
- 일시 : 8월 16일 (셋째 토요일)
- 미사 : 11시
- 식사 : 정오
- 장소 : 작은예수회 LA분원
☎(213)820-6535

◆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모 안토니오신부님의 사제서품 55주년 및 팔순 감사미사를 봉헌하오니, 많은 기도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 8월 23일(토요일) 오후 5시
- 장소 : 성 그레고리 성당
900S. Bronson Ave. L.A., CA 90019
- 연락처 : 이 미카엘 ☎(213)700-1788

◆ 성 아그네스 성당 : 예수회 성경대학 7학기 강의안내

- 주제 : "요한 복음서를 통해서 본 예수생애"
- 강사 : 송봉호 토마스 신부(예수회 한국 판구)
- 장소 : 성 아그네스회관
- 일시 : 8월 22일(금), 23일(토) 24일(주일)
- 수강료 : \$ 50 (1일수강료 \$20) ☎(323)731-4433 (사무실)

◆ 제3기 성 요셉 아버지학교

- 일정 : 9월 7, 14, 21, 28일 (4주일)
- 장소 : LA 성아그네스 천주교회
- 문의 : 오재민 바오로 ☎(562)505-8070

◆ 면형강학회 (순교자 영성)

- 선조들의 삶을 통해 자신의 뿌리를 알아가고 정체성을 찾아 성숙한 신앙의 증거자가 되기 위한 공부와 기도과정
- 일정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미주지부내 순교자영성센터
16276California Ave. Bellflower, CA 90706
- 문의 : ☎(562)461-8100

소공동체 7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욱 올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오신재 매리텔다 991-4838 8/8(금) 오후 6시 성당회의실
	2	김찬구 요한 701-6343	민원희 안나 701-6343 8/9(토) 오후 7시 성당 강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8/15(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레오도시오 780-3258	박인식 토마스 953-9597 8/16(토) 오후 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정남형 알베르토 991-8556 8/9(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김현숙 벨라렛다 617-1132 8/9(토)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엄영숙 마리아 625-3312 8/22(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임미숙 로사 634-6923 8/15(금) 오전 10시30분 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8/8 (금) 오후 7시 성당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욱 올리아 404-1607	황안젤라/임젼마 404-1607 8/11(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윤희동 안토니오 749-3151 8/10(주일)오후 1시 하버시터파크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고규재 체칠리아 531-0123 8/8(금) 오후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배진영 프란치스코 793-6157 8/8(금)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8/9(토) 오전11시De Portola 파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이귀란 안네스 617-3568 8/12(화) 오전 10시 30분 성당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날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자식의 은혜

너 몇 살이니? / 15살요.

엄마는 지금 몇이신데? / 15살요.

엄마, 네 엄마가 너하고 쌍둥이란 말이냐?

엄마는 저를 낳고서야 엄마가 되셨네요.

아빠두 맨날 제 덕분에 아빠 되었다고 하세요.

그래그래 자식이 부모를 키워주지.

평생이 걸리지만 부모 되게 해주지.

위의 소품은 어느 해 어버이날에 발표했습니다. '시'라는 언어 예술은 평범을 뒤집은, 거꾸로 발상에서 쓰여집니다. '시'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작품은 물론 새로운 발명, 발견 등 모름지기 창조는 모두가 평범을 뒤집어야 독창적이 되니까요.

밤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키운 저에게 자식을 주시어, 자식을 통해 저를 키우시는 주님은, 내 아이들은 속 썩이지 않게 키워 주셨지만, 저의 욕심으로 더 기도하게 되곤 했습니다. 아이가 단신으로 외국에 가서 공부를 마치기도 전에 직장을 주셨고, 기다리기 전에 손자, 손녀를 주시어 잘 키워 주시지만, 엄마로서 염려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은혜로 자란 저는 자식 덕분에 반성하게 됩니다.

자식 덕에 부모 되어, 참 부모님이신 하느님 심정을 짐작하게 됩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내 자식이고, 모든 어린이들이 내 손자, 손녀들처럼 사랑스럽고 소중한 줄을 알게되니, 이것이 자식 은혜가 아닌가 합니다.

직업 안 갖겠다는 다짐을 받고 결혼한 줄은 나중에 머느리한테 듣고 알았습니다. 직장을 나가는 엄마가 얼마나 싫었으면... 새삼 미안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자식'이란 옛말도 실감났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내 아이들에게는 무한 참고, 무한 용서하고, 패심해도 금방 잊고 더 주고 싶어져 내 삶이 온통 엄마로서의 삶이 되듯이, 주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아니 내 마음보다 몇천만 배나 더 우리에게 그러하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이란 호칭도 좋지만, 어머니 하느님이면 더 좋을 텐데... 램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껴안은 아버지의 두 손이 어머니(여자) 손과 아버지(남자) 손인 것에 감탄을 거듭하면서 말입니다.

'하느님은 나를 당신의 참 자식으로 만드시느라고 내게 자식을 주셨구나!' 마치 하느님께서 '부모가 되어보니까 부모인 내 마음 알겠니?'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러 자식에게 간하지 말라는 말씀도 듣지만, 자식 가진 부모 의식이 아니면 어떻게 더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고연령이 되니 모두가 나보다 어려 보여서 모두가 내 자식들 같고 내 손주를 같습니다. 아들 가족이 외국에 살아서

더 기도하게 되고, 딸애가 미혼이라서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 중에 우리 아빠 아버지 하느님 심정이 내 심정보다 몇 천만 배일 거라고 생각하게 되니, 이것이 자식 은혜 아닌가 합니다. 자식 덕에 부모 되어 참 부모 하느님을 더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 유안진 글라라 / 시인, 서울대명예교수

<전례 상식>

성모 마리아의 축일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축일은 무엇인가요?

☞ 1950년 11월1일, 교황 비오 12세의 성모 승천에 대한 교의 선포는 이 축일에 대한 모든 전례를 재구성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성모승천 대축일은 마리아를 공경하여 지내는 축일들 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것이 되었으며, 이 칭호의 마리아를 수호성인으로 삼는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고, 수많은 본당과 수도회는 영광스럽게 하늘에 들어올려진 마리아의 수호에 스스로를 의탁하였습니다. 이 대축일에는 전야 미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

성경에 우상숭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구절을 자주 접합니다. 어떤 행위들이 우상숭배가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우상(偶像)이란 말은 원래 '하느님 대신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이나 개념'을 뜻합니다. 그런데 뜻이 바뀌어 요즘은 우상을 '맹목적인 숭배의 대상'이란 다른 뜻으로도 사용합니다.

젊은 연예인에게 사용되는 '아이돌' 역시 그 뿌리는 우상을 뜻하는 라틴어 '이돌라(idola)'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상숭배는 한마디로 '하느님 아닌 대상을 하느님으로 섬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금송아지나 바알 신상 등이 우상인 이유는, 그것들이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어 하느님 대신 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시면서 맘몬(Mammon)이란 재물의 우상을 경고하십니다.

내 삶의 제일 윗자리에 모셔놓고 숭배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느님 안에 하느님 아닌 것들을 넣게 되면 그것 또한 하느님이란 이름을 지닌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늘 내가 모시는 하느님이 교회가 고백하는 하느님인지, 아니면 내가 하느님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우상인지 늘 되물어보아야 합니다.

재물도 건강도 명예나 권력도 그것이 우리 삶의 제일 윗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이미 우상입니다. 제일 윗자리에 게실 분은 하느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홍경완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